

社說

탈원전 폐기 다행, 낡은 운동권 이념이 미래 발목 안 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에서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확실성이 컸던 사안을 기존안대로 확정된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끝났다.

우리 앞에 놓인 전력의 현실은 심각하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현재 30% 수준인 원전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2050년까지 최소 20기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용할 전력 폭증을 감안하면 이번 2기 건설은 첫걸음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평균 14년이 걸린다. 지금 삽을 떠도 전기 생산은 2040년은 돼야 가능하다. 문 정권 때 탈원전은 해가 갈수록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너지는 '제조 강국' 독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 kWh당 80~100원 수준이었던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최대 3배 가까이 폭등했다. 탈원전 등으로 이미 대체 전력은 없어진 상황이었다. 그 결과 독일 경제의 심장인 '미텔슈타트(강소기업)'와 '히든 챔피언'

들'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무너지고 있다. 2024년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2만1812건으로, 3년 새 56% 급증했다. '23분마다 기업 하나가 사라진다'는 독일 언론 보도가 나온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다 지난해 겨우 0.2% 성장한 배경에도 경쟁력 없는 전력 문제가 있다. AI 산업의 핵심인 전기가 비싸고 불안정하니 독일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는 커녕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 비율이 세계 선두 기업들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 정도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의 전력 경쟁력도 탈원전 자체 파동을 거치면서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kWh당 120원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이틀보다 1.5배나 비싼 182원에 전기를 쓴다. 전기료 인상 속도도 가팔라 3년 동안 70%가 급증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품 원가 경쟁을 하고,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나. 예정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수준을 넘어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재정립과 송배전망 확충에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독일 산업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핵우산' 빠진 美 전략 지침서, 이제 핵우산은 말로만 남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NDS)에서 '확장 억제(핵우산)'라는 용어가 빠졌다. 작년 12월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이 용어가 없었다. NSS와 NDS는 4년마다 수립되는데 바이트만 해도 '확장 억제'를 명시했다. 미 핵심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이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SCM) 공동 발표문에는 "확장 억제 제거"가 들어갔다. 이번 NDS에도 '미국의 중요한(critical) 지원'이 언급됐는데 '확장 억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에 오는 미 당국자들도 '확장 억제'에 대해 물론 "변함없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 짧은 용어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최근 미국은 '북 핵확화'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한·미 핵협의그룹(NCG) 성명에선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 확장 억제가 핵심인 회의에서 '북한'이 빠진 것이다. 트럼프는 북을 '핵 세력'으로 부르며 김정은과 이변트를 대놓고 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은 느

슨해지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새 NDS를 주도한 사람이 미 콜비 국방차관이다. 그는 취임 전후 인터뷰에서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미국에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다. (미 본토 공격용인) 북한 ICBM 제한에 초점"이라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지만 미국의 속내이고 진실일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워싱턴을 희생할 것이라는 물음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럴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알아지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핵우산'은 공식 문서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미 당국자들의 '입'에만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보란 듯 전국 순회 북 콘서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중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그는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입자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상고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김용씨 측은 출판 기념회 소개 글에서 "정치 검찰 조차,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준 우리의 동지"라고 했다. 중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밖에서 "정치인 줄 세우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판결을 내릴 대법원을 위협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법에 대한 조롱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대장동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다.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재판을 끌어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몰아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렇게 활개 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앞에서 수사 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리를 수사한 검사는 고통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은 호통을 친다.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서 지경이다.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혜훈 아닌 김성식이었더라면

태평로



최경운

사회부장

주장을 반복했다. '기본 시리즈'의 이 대통령이, 이런 '진부한' 주장에 감복했을 리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필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됐더라면 하는 인사도 동시에 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이다.

김성식은 원래 보수 진영의 소장 개혁파였다. 정부보다 정책을 우선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출신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 시절 그의 방을 찾으면 박사인 이 후보자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깊

이 있는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후보자가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리며 정파 싸움의 선봉에 섰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택시 기사를 아들인 김 부의장은 민주당을 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을 다녀왔다. 하지만 어느 운동권과 달리 합리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2007년 동지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사베리아로 나갈 때 따라가지 않았다. 그 때도 동지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의 품성과 노선의 건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는 3수 끝에 2008년 총선에서 집권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

지만, 정권 주류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스승 정운찬이 이명박 정부의 총리가 됐을 때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4선 출신 시아버지의 정치 가업을 승계한 만만스리다. 그래서 야인 시절 정치적 활로를 찾아 여러 선거구에서 재기를 도모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가 지난 총선 때 국회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는 이의 이야기를 들을 적이다. "김중배의 다이나미가 탐나더냐"는 할나오른 그의 출사(出仕) 욕망을 꺾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2020년 이후 김 부의장의 언론사 인물 데이터베이스는 공판이다. 그 시기 그가 벤처 창업자들을 찾아가 "통상이 나라의 미래"라며 토론을 자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야야를 넘어서자"며 청년 정치학교도 열었다. 앙숙 변(鵬)의 통합을 이끌어 일본 메이지 유신의 물꼬를 튼 사카모토 요마는 대업을 이루고선 출사 대신 상선을 타고 통상에 나서려 했다. 김성식은 료마적 성취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치를 접했다는 점에서 이혜훈보다는 료마적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 정치인의 속물성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김성식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문역에 기용하면서 이혜훈을 청문회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이 통합형 인재를 구한다면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장관 지명 후, 예고된 낙마 정치인의 속물성만 보여줘李大통령, 통합 인재 구한다면 희생·헌신의 흔적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혜훈 기획에 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 예고된 낙마였다. 이로써 한국식 '부도덕 교육 강좌'의 한 챕터가 추가됐다. 강좌 주제는 '정치인의 위선과 거짓' 정도가 될 것이다. 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강좌의 저자 직강 같았다. 지명이 철회돼 사필귀정의 교훈도 졌다.

사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었다. 인턴 직원에게 "야! 야!" 괴성을 지르는 녹음이 공개됐을 때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 이 후보자가 버티는 바람에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아들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만 초래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오른쪽' 사람을 잘 모른다고 느낀 건 이 후보자 능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 때문이다.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력만 놓고 보면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찾기 어렵지 않다. 일각에선 2020년 3월 이 후보자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주제로 이 대통령과 벌인 방송 토론이 발탁 계기가 아니냐고 한다. 토론에서 이 후보자는 중소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자는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7]

모차르트 가족의 초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3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전의 그를 그린 초상화는 10여 점이다. 그중 모차르트 가(家)의 주문을 받아 실제 인물을 보면서 그린 확실한 작품이 바로 이 가족 초상화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당시 독일 전역에서 활약하면서 초상화만 5000점을 남긴 요한 네포무크 델라 크로체(Johann Nepomuk della Croce·1736~1819)의 작품이라고는 하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요한 네포무크 델라 크로체, 모차르트 가족, 1780~1년, 캔버스에 유채, 140.4×187.6cm,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박물관 소장.

모차르트와 '나넬'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의 누이 마리아 안나가 함께 현대 피아노의 전신인 포르테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그림 속 포르테피아노가 지금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박물관에 있다. 이들의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던 레오폴트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매의 어머니는 벽에 걸린 초상화 속에서 이들을 내려다본다. 같은 벽에는 리라를 연주하는 음악의 신 아폴로의 조각이 놓였다. 누가 봐도 음악을 기업을 이신다.

에는 누이가 감기에 걸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 그림이 더 그려진다고 했다. 사실 나넬도 어릴 때부터 성인 연주자를 능가하는 뛰어난 테크닉을 자랑하며 유럽 곳곳으로 연주 여행을 다녔다. 어린 모차르트가 건반 악기에 관심을 가진 것도 누이 덕분이다. 다만 당시의 관습에 따라 결혼을 앞두고 연주는 물론 바깥 활동을 멈췄다. 오늘날 태어났다면 '천재 작곡가'가 아닌, '천재 남매 작곡가'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상화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누이는 모델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답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박근혜 사기탄핵 '그들에게 묻는다'

법관 김세윤 등, 헌법재판관 이정미 등, 부역 정치인 김무성 이준석 등등...

가짜 뉴스 양산 주요 언론, 여전히 자랑스러운가? | 박근혜 사건 재심 필요성 제기돼 | 언론 향한 박근혜 명예 회복 요구 검토해야



좌측은 단식 21일차 정청래. 곁에 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관련 광화문 단식 농성 중 흡연하는 모습이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공개됐다. 우측은 단식 10일차 문재인. 같은 해 8월 28일 세월호 유족 병문안을 다녀와 곁에 다녔다. 단식 중단 회견도 선채로 했다. 정청래 문재인 이재명 등 좌파 정치인 단식장엔 어김없이 탐블러가 등장했다. 그 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뉴데일리 DB

◎ '장동혁 단식' 중단시킨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경청 생략)은 《걸어 다니는 1천만 표 /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김무성 유승민 등이 배신한 이유 중 하나가 퇴임 후에도 유지될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8일간 물·소금만으로도 버티는 《진짜 단식투쟁》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하 경청 생략)를 박근혜가 위문했다. 짧은 만남이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몸을 가누지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이 일어선 박근혜가 몸을 돌려 다시 손을 맞잡았고, 장동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진한 감동으로 남았다. 많은 국민들은 "나도 눈물을 흘렸다" "역시 박근혜는 박근혜다"라고 했다.

◎ 진짜 단식 vs 모양만 단식

《진짜 단식》과 박근혜의 방문으로 장동혁은 입지를 굳혔다. 황교안 장동혁의 《진짜 단식》과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의 《단식? 글썽...》은 우파-좌파 단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박근혜는 현재 당적이 없다. 홍준표가 부당한 탄핵 찬성 배신자 세력의 요구로 출당시켰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등에 칼을 꽂은 정치인이 국회에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국회를 찾은 것은 박근혜의 사심 없는 애국심 때문일리라.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은 현대 정치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 광기와 거짓에 부역한 사람들 중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는 돈 문제에 가장 깨끗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경제공동체》(《목시적 청탁》)이니 하는 황당한 논리를 동원했다. 법원은 법적 논리와 거리가 먼 계변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 판사들에게 묻는다

① 박근혜 징역 22년을 확정판 사자들에게 묻는다. 판결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의 기록을 위해 그들의 명단과 판결을 정리한다. ※ 김세윤(1심 재판장):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김문석(2심 재판장): 1심보다도 무거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선고  
※ 김명수(대법원장): 파기 환송  
※ 오석준(파기 환송심 재판장):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 노태악(최종심 주심 대법관): 확정. 국경 농단이라며 징역 20년. 공천 개입이라며 징역 2년. 도합 징역 22년? 과연 타당한가?

◎ 탄핵 부역자-언론에게 묻는다

②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김성태 이혜훈 이준석 등 탄핵 찬성 부역세력에게 묻는다. 당신들 행동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가?  
③ 헌법재판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게도 묻는다. 당신들 파면 결정이 부끄럽지 않은가?  
④ 1심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구형했던 한도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⑤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은 언론의 광기와 거짓이 없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미처도 단단히 미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었다. 거짓·과장·선동·선정만이 판을 쳤다. 뉴데일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이 《가짜 뉴스 생산》에 경쟁적으로 가담했다. 마이너-메이저의 구별도 없었다. 반성·사과도 없었다. 울드

미디어들의 이런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박근혜 재판 재심, 필요하다

최근 박근혜 재판 재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재심을 강조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뀐 김대중 재판보다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박근혜 본인이 거짓보도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좌파 정치인에게 그런 오보들이 쏟아졌다면 고소·고발이 빗발칠 것이다. 언론사-언론인들은 아예 그런 보도를 내보낼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박근혜의 성품상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산나온 옥시성 좌파》에는 알아서 기고 《은순한 초식성 우파》에는 오만방자한 올드미디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보도 최대 피해자 박근혜》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 심각하게 좌편향된 한국 언론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한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1월 25일 게재 되었습니다.

